

2026.7.26

연중 제 17주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1번> Christ Be Our Light	<폴더 33번> 사랑의 나눔	<폴더 13번> 마음을 드높이	<폴더 11번> 순례자의 노래

제 1독서 | 1열왕기 3,5-6.7-12

화답송 | 시편 119(118)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좌)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 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우)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좌)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우)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

제 2독서 | 로마서 8,28-30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13,44-46



The Creation of Adam, by Michelangelo (1508-1512),
Sistine Chapel in Vatican City.

<오늘의 독서 및 복음>

제 1독서

그 무렵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말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오늘의 시(詩)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정희성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쓰레기장이 정원이 되기까지

제가 사는 수도원에는 저를 포함해 다섯 명의 수도 사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나무를 돌보고 화초를 가꾸는 일에 큰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솜씨까지 훌륭하지요. 매서운 겨울이 지나 봄이 되자 요셉 신부님은 수도원 뒤뜰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 제자리에 서서 구상하신 뒤 갖가지 꽃과 크고 작은 화분, 나무와 모종을 가져오셨고, 수도원 뒤뜰에 쌓여 있던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하나씩 정리하며 조금씩 정원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쓰레기장 같던 뒤뜰은 점차 정원의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시간이 흐르자, 버려진 채 잡동사니로 가득하던 땅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정원은 사람도 꽃피웁니다

삭막했던 수도원의 현관과 뒤뜰은 화사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수도원 식구들은 물론 방문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방치됐던 땅이 정원이 되자 까치가 날아들고 벌과 나비도 찾아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마저 스르르 평온해졌습니다. 얼굴과 웃옷은 땀으로 젖고 바지는 흙투성이가 되면서도 신부님은 즐겁게 흙을 고르고, 파고, 심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보상을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일이 즐겁고 기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덤으로 얻는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꽃 대신 마음을 심는 곳: 청년밥상 문간

정원을 가꾸시는 신부님과 아름답게 변한 뒤뜰을 보며 저는 제가 운영하는 '청년밥상 문간'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 식당을 이용하신 분은 21만 명이 넘습니다. 수익이 없는 식당이 9년째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후원자들 덕분입니다. 9년 전 서너 분에 불과했던 후원자들은 이제 2,600여 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매주 식당을 찾아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한 마음을, 땀이 뻗은 후원금을 내어 주신 후원자들 덕분에 식당은 포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이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채우셨고, 그분들의 감사와 격려는 제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어 마음을 채워 주곤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작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엽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담담하게 감사 인사를 적어 내려간 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림에서 자신을 구해 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의 무게와 청년이 견뎌 온 삶의 무게가 제 마음에 툭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에게 건네는 감사의 마음과 그 너머에 담긴 녹록지 않음을 느끼고 나면 식당을 찾는 분들을 더욱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불편해하실까 봐 모른 척 지나가는 척하면서도, 제 마음은 모두가 몸도 마음도 평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가득해집니다.

꽃과 나무의 이름은 '후원자'였습니다

2,600여 분의 후원자들은 꽃과 나무, 돌과 흙이 되어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정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꽃과 풀이 어우러진 정원에 까치가 날아들고 벌과 나비가 머물 듯, 후원자들의 나눔이 쌓이고 더해져 식당은 지친 몸과 허기진 마음을 채우는 밥상이 되었고, 누군가를 살리는 부활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밥 한 끼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한 작은 식당에서 누군가는 삶의 의미와 원동력을 얻게 되리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색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덕분에 살았습니다.'라는 마음을 품은 소중한 손님이 식당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겠지요.

'세상'이라는 이름의 정원

방치된 채 잡동사니만 널브러져 있을 때는 누구도 들어가지려 하지 않던 곳이 한 사람이 묵묵히 손에 흙을 묻히고 땀을 닦아 가며 정원으로 바꾸자, 모두가 한 번쯤 들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땅은 그대로 두면 잡동사니가 쌓여 방치되지만, 애정을 쏟아 가꾸면 전혀 다른 곳으로 변합니다. 내색하지 못한 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함께하는 나눔 역시 '세상'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리고 보니 자신감이 생기네요. 저는 건강한 화초도 쉬이 하느님 나라로 보내는 사람이라 화초를 가꾸는 일에는 영 소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 한 모퉁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고 있었구나 싶습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는 미력하나마 손을 보태고 있는 것 같아 화초들에 품고 있던 미안함도 조금은 씻겨 나가는 듯합니다.

공지 사항

1. 성경 나눔 모임 안내

* 오늘 미사 후 교육관에서 성경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2. 여정 - 시즌 9 안내

* 지난 '여정-시즌 8'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새로운 성경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9월 1일(화)부터 zoom 온라인을 통하여 매주 저녁 7시에 성경모임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3. 공동체 식사 나눔

8월 첫째 주부터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이 시작됩니다.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7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 정유라 엘리사벳 (7.4) * 서미숙 루피나 (7.10)
- * 오선희 베로니카 (7.12) * 박순덕 베로니카 (7.12)
- * 박태오 태오 (7.19) * 박리암 리암 (7.19)
- * 이상명 다니엘 (7.21) * 정수민 비르짓다 (7.23)
- * 조은영 크리스티나 (7.24) * 장현준 크리스토퍼 (7.25)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 <인간생명 존중>

인간 생명을 하느님의 선물로 인식하여 모든 단계에 있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기도합니다.

| 봉헌금 & 교무금 | (7월 18일 ~ 7월 24일)

봉헌금	\$ 222			
교무금	\$ 820			
구민식	권묘순	신미란	양홍석	윤현태
양명식	이국원	장일한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최원미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7월 공동체 실천 |

가족에게 하느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기

- 이번 달에는 가족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미소, 카톡 메시지, 꽃 한 송이 등의 자그마한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해볼까요?